numbers

NO. 218

2023. 12. 5.

주요 내용

1. Part 1: [미국 개신교인의 교회 이동 실태]
   미국 교인, 교회 옮길 때 현장예배 3회 참석 후 옮길 결심!

   Part 2: [미국 고령 교인의 영적 성장 욕구]
   미국 고령 교인 대다수, 지속적인 영적 성장 원해!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개인파산 실태
   2) 한국인의 북한이탈주민 인식

목회데이터연구소
MINISTRY DATA INSTITUTE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미국 교인, 교회 옮길 때 현장예배 3회 참석 후 옮길 결심!

미국의 대표적 기독교 조사기관인 라이프웨이리서치가 미국 교인들의 수평 이동에 대해 조사연구를 실시해 발표하였는데, 한국교회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주제여서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기독교 역시 한국과 비슷하게 하락하는 추세인데, 하락하는 상태에서는 양극화와 수평이동이 심해지는 현상이 보인다. 따라서 수평 이동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이번 미국 교인들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회를 옮기기 전 해당 교회 현장예배를 3회 정도 드리고 옮길 결심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옮길 교회를 결정할 때 설교와 더불어 그 교회의 '목회철학/미션'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제에 우리 연구소에서도 한국교회 수평 이동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넘버즈 218호〉는 미국 개신교 고령 교인들의 영적 성장 욕구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한국 교회 고령 교인들의 영적 욕구를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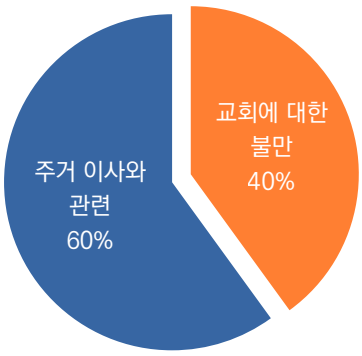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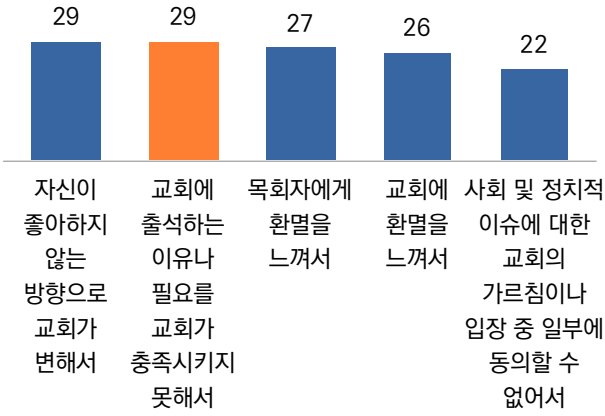
01 미국 개신교인의 교회 옮긴 이유, 5명 중 2명은 '교회에 대한 불만'!

- 최근 미국 라이프웨이리서치에서 월 2회 이상 예배에 출석하는 미국 개신교인 1,001명을 대상으로 '교회를 옮기는 자에 대한 연구 2023'을 발표했다. 먼저 교회 옮긴 개신교인에게 '교회를 옮긴 이유'에 관해 물은 결과, '주거 이사 관련' 60%, '교회에 대한 불만' 40%로 미국 교인 5명 중 2명은 '교회에 대한 불만'을 교회 이동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 '교회에 대한 불만으로 교회를 옮긴 교인'들에게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물었더니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회가 변해서(29%)'와 '교회 출석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를 교회가 충족시켜 주지 못해서(29%)'를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했다.

[그림] 교회를 옮긴 이유 (미국 교회 옮긴 개신교인)



[그림] 교회를 옮긴 이유 (미국 교회 불만으로 교회 옮긴 개신교인, 중복응답,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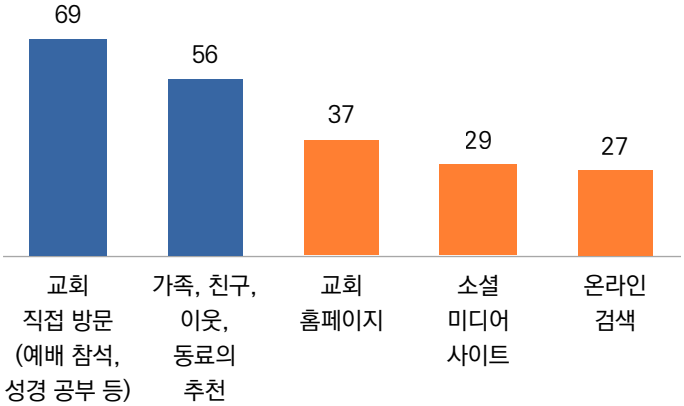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라이프웨이리서치, 'Church Switcher Study 2023 Factors in Choosing Current Church Report'. 2023.11. (한 달에 2번 이상 예배 출석하는 미국 개신교인 1,001명, 온라인 설문조사, 2023.07.26.~08.04.)

◎ 새 교회 탐색 시 직접 방문 외 온라인 자료 활용!

- 새로운 교회를 찾을 때 참고한 것을 물은 결과, '교회 직접 방문'이 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 친구 등 지인의 추천', '교회 홈페이지' 등의 순이었다. 직접 방문뿐 아니라 교회 홈페이지,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는 경우도 각각 30% 안팎인 점이 주목된다.

[그림] 새로운 교회를 찾을 때 참고한 것 (미국 교회 옮긴 개신교인, 중복응답,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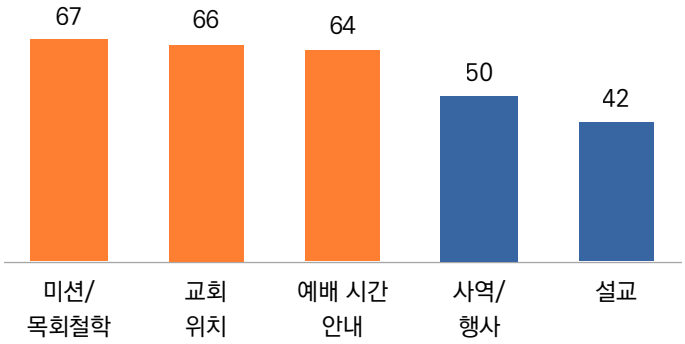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라이프웨이리서치, 'Church Switcher Study 2023 Factors in Choosing Current Church Report'. 2023.11. (한 달에 2번 이상 예배 출석하는 미국 개신교인 1,001명, 온라인 설문조사, 2023.07.26.~08.04.)

◎ 옮길 교회 홈페이지에서는 '목회철학'이 가장 도움된 정보!

- 한편 옮길 교회 홈페이지에서 가장 도움이 된 정보가 무엇인지를 물은 결과, '미션/목회철학(67%)'과 '교회 위치(66%)' 그리고 '예배 시간 안내'(64%)가 가장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그림] 옮길 교회 홈페이지에서 도움된 정보 (미국 교회 옮긴 개신교인, 중복응답,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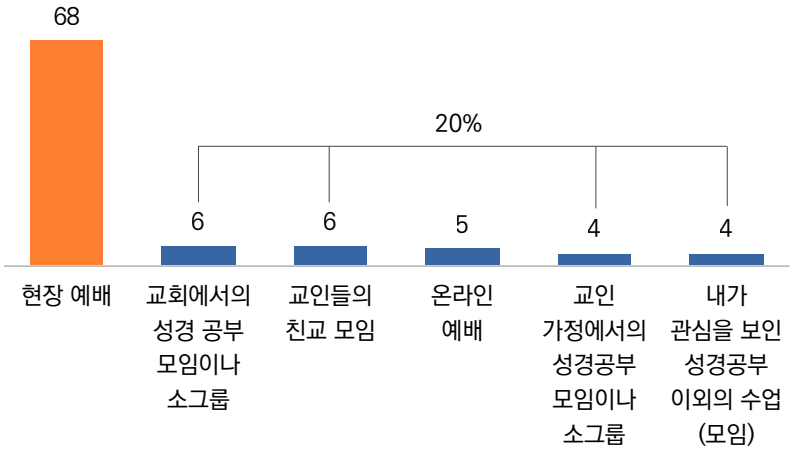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라이프웨이리서치, 'Church Switcher Study 2023 Factors in Choosing Current Church Report'. 2023.11. (한 달에 2번 이상 예배 출석하는 미국 개신교인 1,001명, 온라인 설문조사, 2023.07.26.~08.04.)

◎ 현 교회 탐색 시 참석한 첫 활동/행사, 4명 중 1명 이상 '예배아닌 다른 모임'!

- 새롭게 교회를 옮긴 교인들을 대상으로 '현재 교회에서 처음으로 참석한 행사/활동'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현장예배'가 68%로 압도적이었으나, '소그룹', '친교 모임', '성경 공부 외 관심 있는 수업' 등을 꼽은 비율도 20%로 교회를 옮긴 교인 5명 중 1명 이상은 예배가 아닌 다른 모임부터 현재 교회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그림] 현재 교회 탐색 시 처음으로 참석한 행사/활동 (미국 교회 옮긴 개신교인,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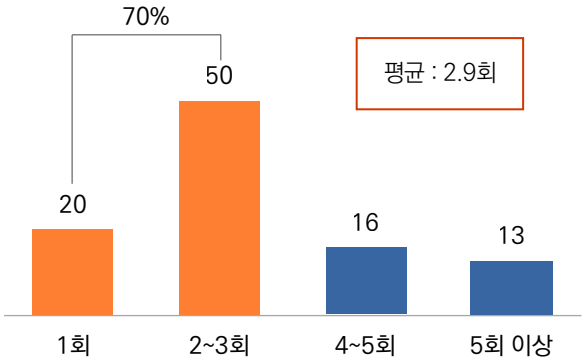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라이프웨이리서치, 'Church Switcher Study 2023 Factors in Choosing Current Church Report'. 2023.11. (한 달에 2번 이상 예배 출석하는 미국 개신교인 1,001명, 온라인 설문조사, 2023.07.26.~08.04.)

◎ 미국 교인, 교회 옮길 때 현장예배 3회 참석 후 옮길 결심!

- 새롭게 교회를 옮기기 전에 현재 출석교회 현장예배에 미리 얼마나 참석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2~3회'가 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회' 20%, '4~5회' 16% 순이었다. 교회를 옮긴 교인 10명 중 7명은 3회 정도까지 예배를 드린 후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평균은 2.9회로 나타났다.

[그림] 교회 옮기기 전 현장예배 참석 횟수
(미국 교회 옮긴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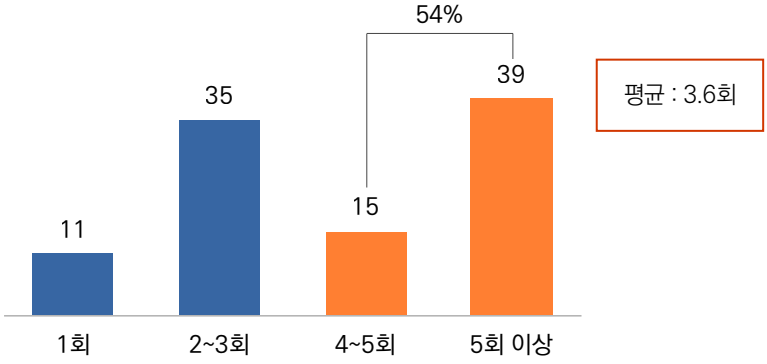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라이프웨이리서치, 'Church Switcher Study 2023 Factors in Choosing Current Church Report'. 2023.11. (한 달에 2번 이상 예배 출석하는 미국 개신교인 1,001명, 온라인 설문조사, 2023.07.26.~08.04.)

◎ 옮길 교회의 첫 방문 전, 온라인 예배 3.6회 드려!

- 옮길 교회 첫 방문 전 현장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를 먼저 드린 교인들에게 온라인 예배 참석 횟수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절반 이상(54%)이 4회 이상 드린 것으로 조사돼, 사전에 온라인으로 먼저 예배에 익숙해지려는 경향을 나타냈다.
- 교회 옮기기 전 온라인 예배를 드린 평균 횟수는 3.6회로 나타났다.

[그림] 현재 교회 방문 전 온라인 예배 참석 횟수
(미국 교회 옮긴 개신교인 중 온라인 예배를 먼저 드린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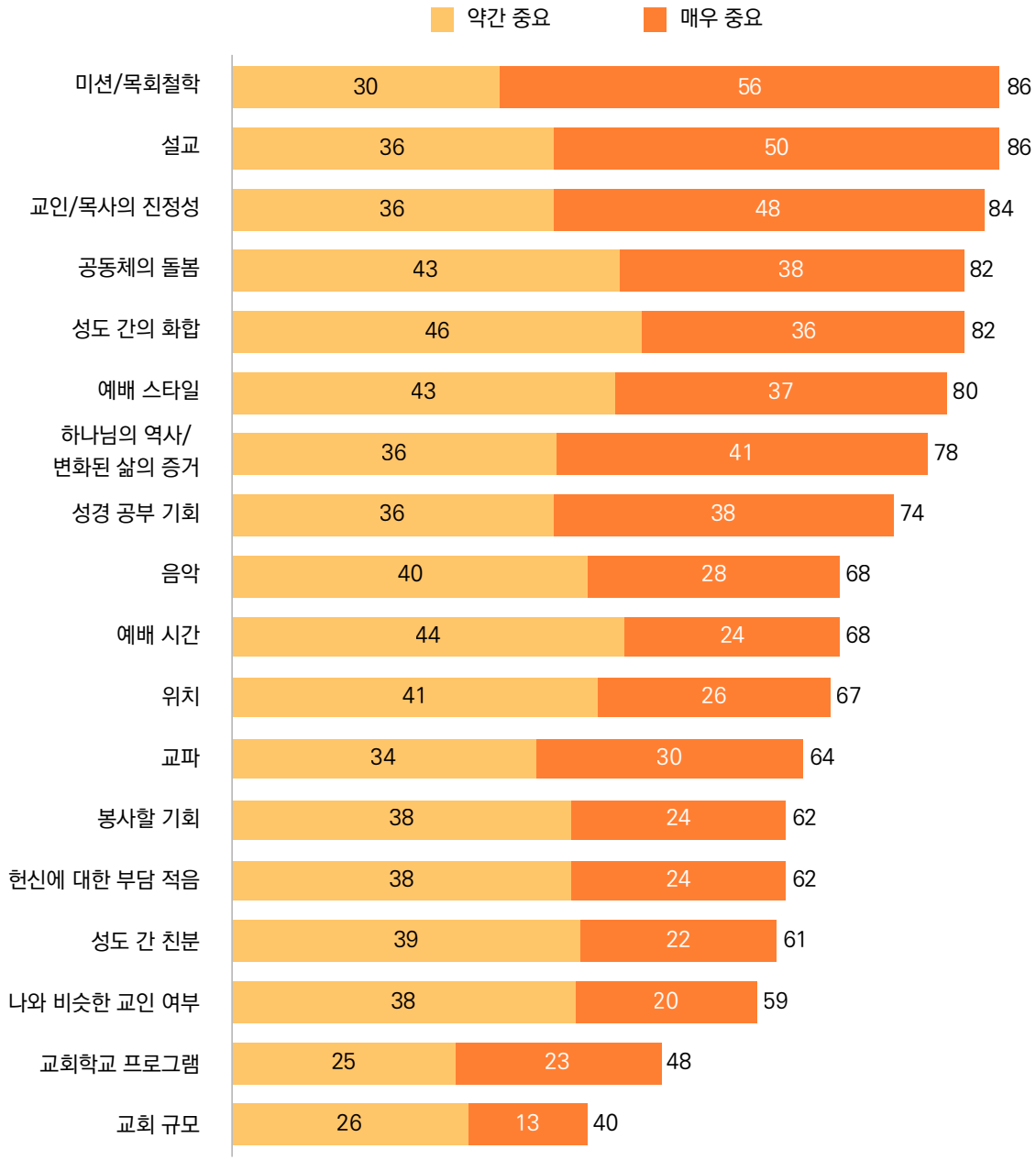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라이프웨이리서치, 'Church Switcher Study 2023 Factors in Choosing Current Church Report'. 2023.11. (한 달에 2번 이상 예배 출석하는 미국 개신교인 1,001명, 온라인 설문조사, 2023.07.26.~08.04.)

◎ 현재 교회로의 이동 결정 중요 요인, '미션/목회철학'과 '설교'!

- 현재 교회로 옮기는데 가장 영향을 준 요소를 중요도(매우 중요+약간 중요) 순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션/목회철학'과 '설교'가 현 교회 출석 결정에 중요했다는 응답이 각각 86%로 가장 높았다.
- 이외에 '교인/목사의 진정성', '공동체의 돌봄', '성도 간 화합', '예배 스타일'이 80%대의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상위 5위권만 보면 교회 신념, 설교 외에는 관계적 측면을 교회 결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반면, '교회 규모', '교회학교 프로그램'은 40%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그림] 현재 출석 교회 옮김 결정에 영향 미친 요소 (교회 옮긴 개신교인, 5점 척도, %)



*자료 출처 : 라이프웨이리서치, 'Church Switcher Study 2023 Factors in Choosing Current Church Report'. 2023.11. (한 달에 2번 이상 예배 출석하는 미국 개신교인 1,001명, 온라인 설문조사, 2023.07.26.~08.04.)

시사점

예장통합 통계위원회가 지난 8월에 공개한 '2022년 예장통합 교세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교인 수는 18% 감소했지만, 교회 수와 목사 수는 각각 10%, 27% 증가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서는 출석 교인의 66%가 현 교회에 대해 '불만 있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교회를 떠날 생각이 있다'는 비율은 17.5%로 나타났는데 이는 10년 전 결과(3.5%)보다 5배나 높은 수치이다. 교세는 감소하고 있지만 교회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교회에 불만과 이탈 의사가 있는 교인의 존재를 감안하면 한국교회의 교인 간 수평 이동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현상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예배와 관련한 미디어 콘텐츠는 더 발전하고 확대되어 누구나 쉽게 타 교회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 수평 이동의 장벽을 더 낮추고 있다.

교인 간의 교회 수평 이동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보통 더 큰 규모의, 더 알려진 교회로 이동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대형교회 쏠림 현상으로 선교를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가진 한국교회 전체의 균형과 상생이 무너지고, 특히 소형교회의 빈익빈 현상이 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주거지 이전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와 개인 신앙을 개선하고자 더 적합한 교회를 찾는 교인의 필요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번 넘버즈가 인용한 라이프웨이리서치의 '교회를 옮기는 자 연구 (Church Switcher Study)'에서 미국 개신교인이 성인이 된 후 교회를 옮긴 경험률은 53%로 나타났으며 한국 개신교인 역시 절반 이상(61%)이 교회를 옮긴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신앙 성숙 등 건강한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찾는 개신교인을 위해 교회가 염두에 두고 준비할 사항을 이번 미국 개신교인의 사례를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개교회만의 '목회철학'을 '온라인' 상에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표현해야 한다. 미국 개신교인이 새로운 교회 탐색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것과 '가족과 지인의 추천'을 받는 것 외에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바로 홈페이지나 SNS 등의 '온라인 정보'였다. 현재 출석하는 교회를 옮기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설교'(86%)와 더불어 '미션/목회철학'(86%)이며 교회 홈페이지에서 '미션/목회철학(67%)'을 보면서 교회 결정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 아예 없거나 '인사말'로 간단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목회철학이 게재되어 있어도 그 교회만의 특성이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다.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 다양한 종교적 욕구를 갖고 있다. 어떤 성도는 내적 영적 성숙을 더 추구하고 어떤 성도는 사회적 책임을 더 중요시한다. 다양화되는 종교적 욕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하려면 교회의 목회철학은 명료해야 하고 그 교회만의 특성이 드러나야 한다. 구체적인 담임목사만의 사역 방향성은 '인사말' 그 이상이어야 하며 교회 포화 시대에 교회를 구별하게 만드는 '차별화된 가치'이다.

그다음으로 교회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미션/목회철학'과 '설교' 다음으로 교회 옮김에 결정적 영향을 한 요소는 '교인/목사의 진정성', '공동체의 돌봄', '성도 간의 화합' 순이었다.

모두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교회의 존재 이유이다. 올바른 성도의 교제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기존 교인들이 새로운 방문자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대할 때 교회의 진정성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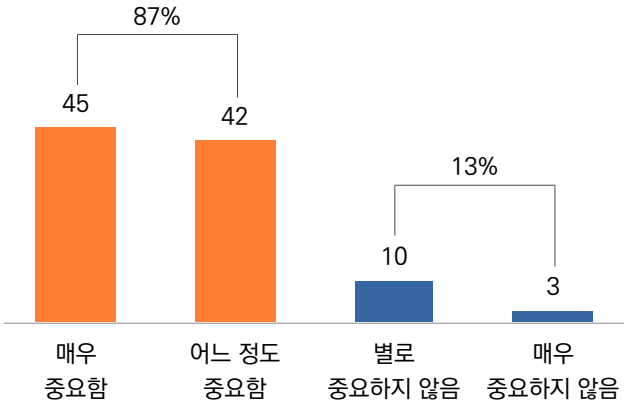
현재 한국교회는 절반이상이 50명 미만의 소형교회이다. 교회 이전에 있어 소형교회가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명확한 목회철학과 개교회가 가진 매력을 교회를 찾는 이에게 진정성있게 보여준다면 한국의 많은 교회 수는 오히려 교회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되고 한국교회의 신앙은 더 깊어질 것이다.

*21세기교회연구소, '개신교인의 교회선택과 교회생활', 2016.10.21.(만 20세 이상 개신교인 500명, 온라인조사, 2016.9.30.~10.05.)

01 미국 고령 개신교인 대다수, 지속적인 영적 성장 원해!

- 최근 미국 바나연구소에서 미국의 55세 이상 개신교인의 영적 성장 욕구와 이러한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다룬 'Aging Well'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몇 가지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 먼저 '나 자신의 영적 삶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물었다. 그 결과, '매우 중요함' 45%, '어느 정도 중요함' 42%로 미국 55세 이상 고령 개신교인 대다수(87%)는 개인의 지속적 영적 성장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영적 성장의 지속적 발전 중요성 인식 (미국 55세 이상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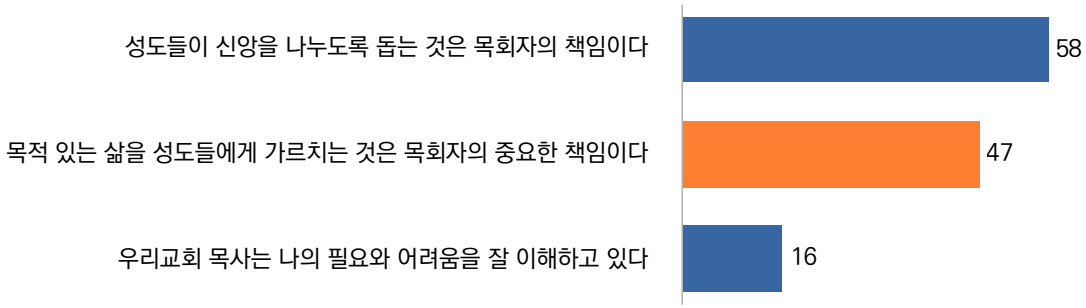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Barna Group, 'Aging Well: A Renewed Vision for Older Adults', 2023.10.18. (미국 성인 2,001명, 온라인 조사, 2022.07.01.~07.19.)
(https://www.barna.com/research/later-stages/)

◎ 미국 고령 개신교인 절반 가까이, '목적있는 삶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목회자 역할' 크게 기대하고 있어!

- 영적 성장을 위해 목회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목회자 역할에 대한 몇 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율(매우 동의)을 살펴본 결과, '성도들이 신앙을 나누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다'에 58%가 매우 동의했다.
- 또한 '목적이 있는 삶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다' 47%도 절반 가까이 강하게 동의했다. 즉, 미국 고령 개신교인의 절반 가까이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목적있는 삶을 가르치는 역할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림] 영적 성장에 대한 목회자 역할 인식 (미국 55세 이상 기독교인, '매우 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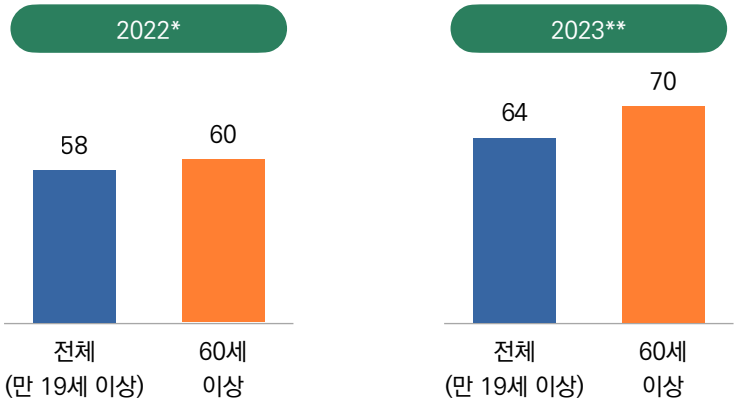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Barna Group, 'Aging Well: A Renewed Vision for Older Adults', 2023.10.18. (미국 성인 2,001명, 온라인 조사, 2022.07.01.~07.19.)
(https://www.barna.com/research/later-stages/)
**4점 척도임

◎ 한국 고령 개신교인 10명 중 7명, '영적 갈급함' 느껴!

- 그렇다면 한국 고령 개신교인의 영적 욕구는 어떠할까? 한국 개신교인들 대상으로 '영적 갈급함' 정도를 물은 결과, 2022년 58%, 2023년 64%로 1년 사이 6%p 상승했고, 60대 이상 고령 교인의 경우 2022년 60%, 2023년 70%로 더 크게 높아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고령 개신교인의 영적 갈급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그림] 영적 갈급함 인식 (한국 개신교인, '크게+어느 정도' 느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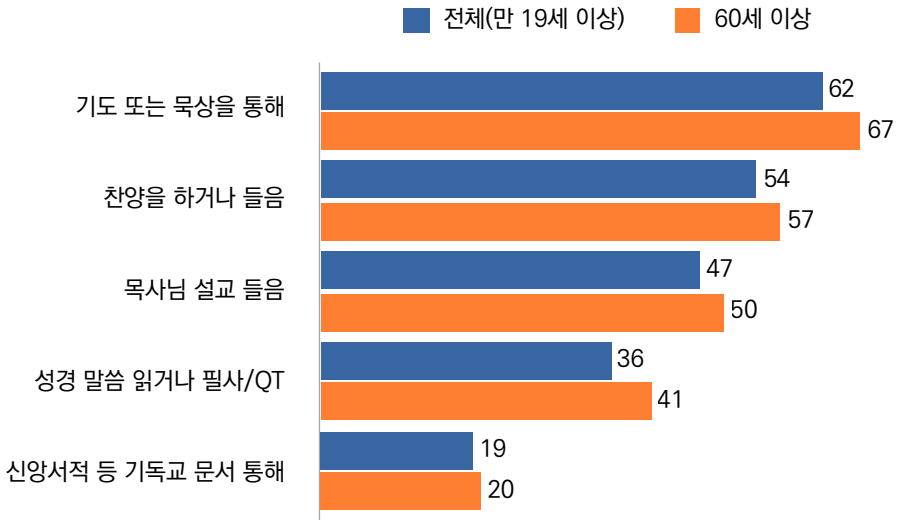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조사(개신교인 조사 보고서)', 2022.05.25.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 조사, 지앤컴리서치, 2022.04.15.~04.25.)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개신교인 조사 보고서)', 2023.06.10.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지앤컴리서치, 2023.05.12.~05.31.)
***4점 척도임

◎ 한국 고령 교인의 영적 욕구, 다른 세대보다 더 높아!

- 한국 개신교인에게 영적 갈급함을 어떤 방식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기도 또는 묵상'이 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찬양을 하거나 들음' 54%, '목사님 설교 들음' 47%, '성경 말씀 읽거나 필사/QT' 36% 의 순으로 나타나 '설교'보다 '기도와 묵상'이 더 높았다.
-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전체 응답자보다 선택한 비율이 높아 더 높은 영적 갈급함을 드러냈다.

[그림] 영적 갈급함 충족 방법 (한국 개신교인, 중복응답, 상위 5위, %)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조사(개신교인 조사 보고서)', 2022.05.25.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 조사, 지앤컴리서치, 2022.04.15.~04.25.)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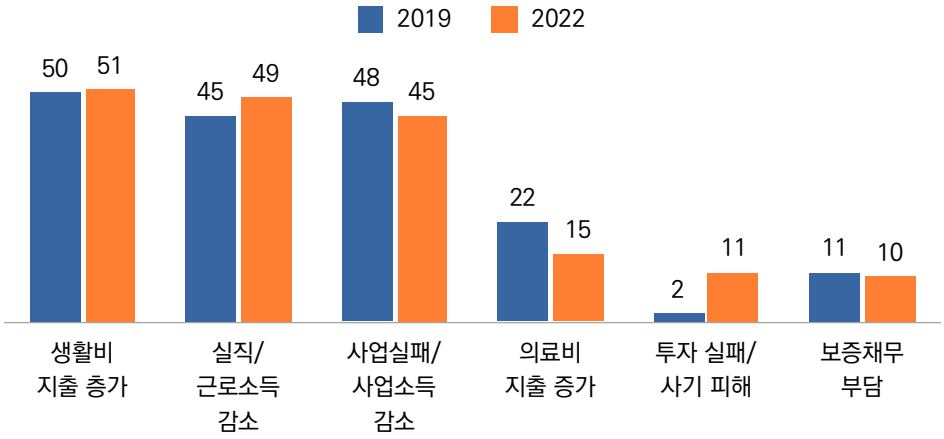
1.[개인파산 실태]

2.[한국인의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인파산 원인, '투자 실패/사기 피해'가 3년 사이 크게 높아져!

- 우리나라의 경제 불황은 나라 경기 침체뿐 아니라 서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며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해 왔다. 최근 고금리,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의 파산 실태를 '2022 개인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서울회생법원)를 통해 살펴보았다.
- 개인파산자의 '파산 원인'으로는 '생활비 지출 증가'가 5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실직/근로소득 감소' 49%, '사업실태/사업소득 감소' 45% 등의 순이었다. 2019년 조사 대비 '실직/근로소득 감소'가 늘고, 특히 '투자 실패/사기 피해'가 5배가량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그림] 개인파산 원인 (개인파산자, 중복응답, 상위 6위, %)



*자료 출처 : 서울회생법원, '2022 개인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2023.04.17. (2022년도에 서울 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

◎ 개인파산자의 채무총액, 총 재산의 10배!

- 개인파산자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위값 기준으로 월 수입은 55만 원, 재산은 1,060만 원이었고, 채무 총액은 1억 243만 원으로 총 재산의 10배가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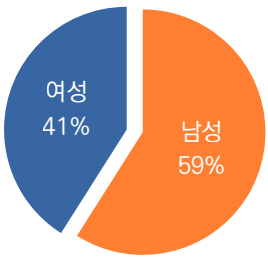
[그림] 개인파산자의 재정 현황 (중위값**기준, %)

*자료 출처 : 서울회생법원, '2022 개인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2023.04.17. (2022년도에 서울 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위값(Median)값 : 어떤 표본의 중간에 해당하는 값으로 데이터 크기순으로 나열하여 가운데 오는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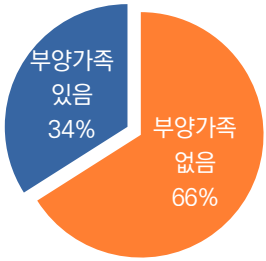
◎ 60대 이상 파산자, 지난 3년 사이 급증!

- 개인파산자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남성(59%)이 여성(41%)보다 많았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60세 이상에서 높은 특징을 보였다. 특히 60대 이상 노인 파산자는 2019년 37%에서 2022년 48%로 전체 파산자의 절반가량까지 비중이 높아져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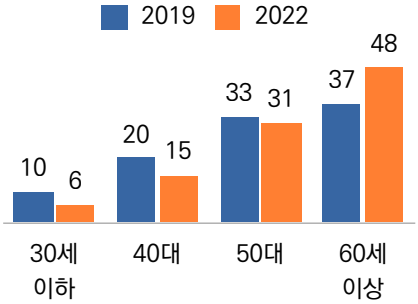
[그림] 개인파산자의 성별



[그림] 개인파산자의 부양가족 유무



[그림] 개인파산자의 연령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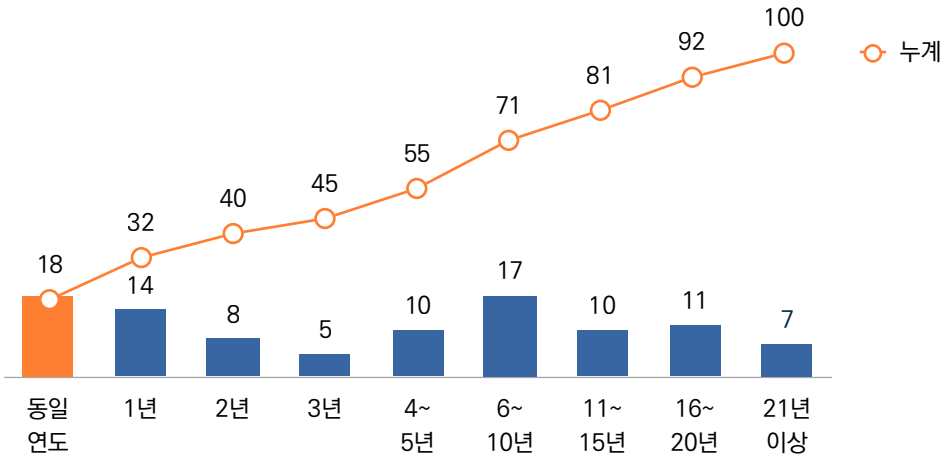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서울회생법원, '2022 개인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2023.04.17. (2022년도에 서울 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

◎ 개인파산자 10명 중 6명은 파탄에서 파산까지 3년 이상 버텨!

- 개인파산자의 파탄 시기(파산자가 인식하는 파산의 원인이 시작된 시기)로부터 파산(법원 신청 기준)까지의 기간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파탄 시기와 동일 연도에 파산 신청을 한 경우는 18%에 불과했고, 파탄 시기부터 파산 신청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채무자들이 10명 중 6명(60%)이나 되었다. 파탄에 이른 채무자일지라도 개인파산을 신청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파탄 시기부터 파산까지의 기간 (개인파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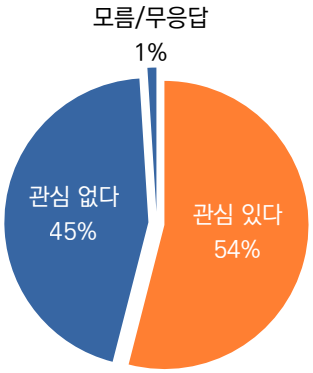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서울회생법원, '2022 개인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2023.04.17. (2022년도에 서울 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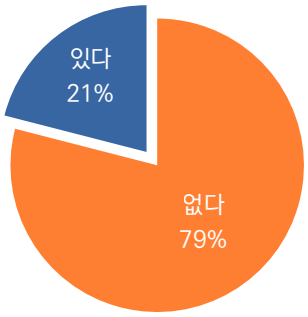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북한이탈주민 만나본 적 없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최근 공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탈북민 인식을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도를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54%는 '관심 있음', 45%는 '관심 없음'이라 응답해, 절반 정도의 국민만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도를 보였다.
-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올해 6월 말 기준 3만 4천 명인데*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수(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3.06. 기준)의 0.07% 수준이다. 이런 '북한이탈주민'을 실제 접촉·교류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국민 10명 중 8명은 '접촉하거나 교류한 경험'이 없었고, 21%만 실제 탈북민과 접촉 및 교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 (일반국민)



[그림] 북한이탈주민 접촉 및 교류 경험 (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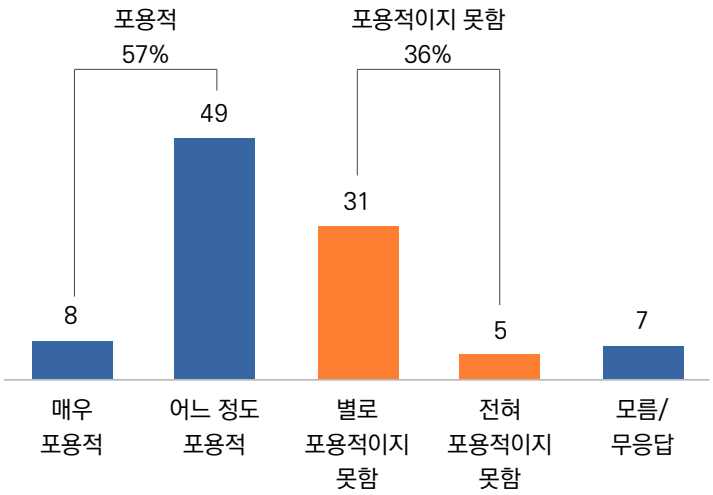
2023년 6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수
: 34,000명

*자료 출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2023.11.08. (전국 만19세 이상 1,000명, 전화 조사, 글로벌알앤씨, 2023.10.20. ~10.22.)
**4점 척도임

◎ 한국인 3명 중 1명 이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포용하지 못해!

- 한국인은 한국인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할까? '포용적'이란 의견이 57%, '포용적이지 못함' 36%로 우리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은 한국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포용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한국인의 북한이탈주민 포용 인식 (일반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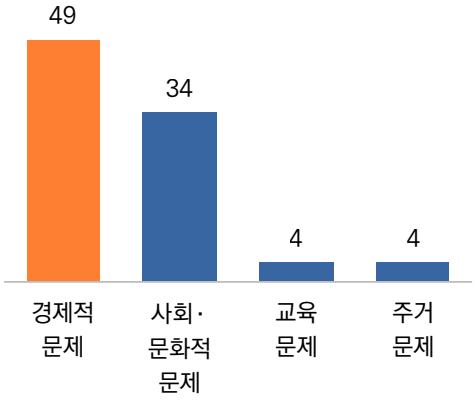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2023.11.08. (전국 만19세 이상 1,000명, 전화 조사, 글로벌알앤씨, 2023.10.20. ~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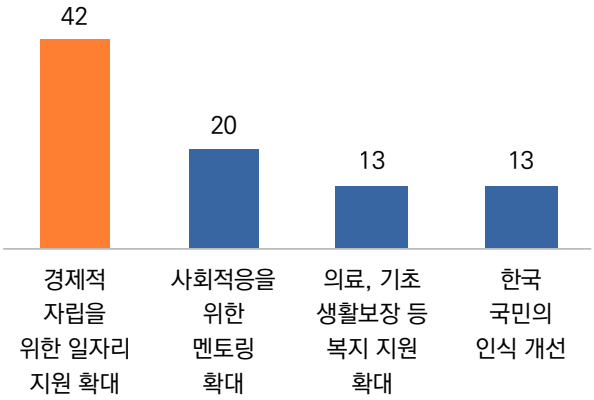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큰 어려움, '경제적 문제'!

-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경제적 문제(49%)'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문제(34%)', '교육 문제(4%)' 등의 순이었다.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사회적응을 위한 멘토링 확대(20%)'나 '의료,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 지원 확대(13%)'보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42%)'를 1순위로 응답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큰 애로 사항(경제적 문제)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림]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큰 어려움 인식
(일반국민, 상위 4위, 기타 제외, %)



[그림]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효과적인 방안
(일반국민, 상위 4위, %)



*자료 출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2023.11.08. (전국 만19세 이상 1,000명, 전화 조사, 글로벌알앤씨, 2023.10.20. ~10.22.)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67호 (2023년 11월 5주)

- 역대 대통령 10인 개별 공과 평가 등

◎ 사회 일반

'하루 1개' 문 닫는 어린이집…서울시 지원 나선다

여성신문_2023.11.30.

한국 병원서 임종 비율 70%…오이시디 회원국 중 가장 높아

한겨레_2023.11.28.

'내가 고독사할 확률?'…성인 남녀 평균 응답은 "32%"

연합뉴스_2023.12.03.

외로움, 시대의 病… '연결'을 복원하라

국민일보_2023.12.02.

초등학교도 저출산 직격탄…내년 초1 사상처음 40만명 무너질 듯

연합뉴스_2023.12.03.

"한국 인구감소, 흑사병 때보다 빨라...45년후엔 3500만명"

조선일보_2023.12.03.

출산율 또 역대 최저치… 혼인 감소 속 국제결혼은 껑충

국민일보_2023.11.30.

'중산층 상징' 피아노의 굴욕…동네서 '띵띵띵' 소리 사라졌다, 왜

중앙일보_2023.11.28.

한국인, 생애 60%가 '적자 인생'…최대 적자 나이는?

SBS뉴스_2023.11.29.

"서울편입 찬성" 김포 57% 광명 55% 구리 68% 하남 57%

문화일보_2023.12.04.

출퇴근 시간 길수록 우울 청년 삶 만족도 인천 최하

매일경제_2023.12.04.

◎ 청년 / 청소년 / 아동

30~34살 청년 56.3% '미혼'…30년 뒤 청년 인구 11%로 급감

한겨레_2023.11.27.

청년 82%는 미혼, 10명 중 3명은 용돈 타 쓴다

중앙일보_2023.11.28.

4살 아이가 레벨 테스트 본다…의대보다 비싼 '영유'의 세계

중앙일보_2023.11.29.

10~20대 마약 범죄 최다… 기독단체들 예방 나섰다

더미션(국민일보)_2023.11.29.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경제 / 기업

올해 제주에서 1만명이 '일하멍 쉬멍'…"내년엔 2만명 목표"
한겨레_2023.11.28.

65세 은퇴에 370만원 바라지만 현실은 55세 퇴직에 212만원…적정 노후생활비는?
문화일보_2023.11.29.

65세 이상 고령자 56% "계속 일하고 싶다"…19%가 구직 경험
연합뉴스_2023.12.03.

한은 "세계 1위 초저출산 놔두면 2050년 성장률 0% 이하로"
연합뉴스_2023.12.03.

"난 죽으면 필요없는 집이라"…주택연금 가입, 10명중 4명 '이들'
매일경제_2023.12.01.

◎ 건강

"흰강낭콩 하루 한 컵 먹으면…대장암 환자 장 건강 개선에 효과"
동아일보_2023.12.04.

"갑상선 호르몬 과하면 노인 인지장애 위험 증가한다" 美연구 결과
조선일보_2023.12.01.

소화만 도와주는 게 아니네... 요거트, 불안·우울증도 예방
조선일보_2023.12.03.

◎ 기독교 / 종교

성도들, 언론보다 목회자 말 더 신뢰
기독신문_2023.11.20.

"교회 갈 필요없죠"…'AI주님'에 빠진 2030
매일경제_2023.11.26.

"내 손 안의 '미디어', 복음 전파의 가장 좋은 도구"
아이굿뉴스_2023.11.23.

'핵개인' 시대… 평신도들 신앙보다 개인의 행복에 더 관심
더미션(국민일보)_2023.12.04.

성경 보급도 '엔데믹'…국내 성경 18만부 늘었다
국민일보_2023.12.01.

◎ 칼럼

임영웅 현상
여성신문_2023.11.29.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에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신규 후원 |

구병모, 구봉관, 김도균, 김병관, 김순옥, 김은경, 박재덕, 유대식, 이규인, 이상성, 이정규, 차종민, SEO DAVID MOOYOUNG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챤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국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책 구입 안내 |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기반하여 한국 교회 전망과 전략을 담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가 출간되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신학교 교수, 언론인, 현직 대형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 기독교 문화 전문가, 조사 통계 전문가 등 한국교회를 다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로 TFT를 구성, 기획하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와 집필을 주관하여 작년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에 이은 두 번째 책입니다.

서적 소개 동영상　　책 구입 안내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